

데스크 시각

문화전당이 비엔날레를 만났을 때



윤 영 기  
문화미디어부장

반갑다. 광주 문화행사를 대표하는 비엔날레가 오는 201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게 됐다니 말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문화전당이 최근 비엔날레를 문화전당에서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비엔날레(2018년 9월7일~11월11일)가 북구 용봉동 전시장에서 벗어나 전체 행사를 외부에서 치르는 것은 (재)광주비엔날레 창설 이래 처음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도 이를 반기고 있다.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 최대 규모 인프라를 갖춘 문화전당의 협력은 지역민이 고대해 온 바이기도 하다.

한데 비엔날레가 문화전당과 손잡은 속사정이 좀 묘하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 전시장 노후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995년 건립한 전시장(전체 약 8300㎡ 규모) 곳곳에서 노후 현상과 누수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비엔날레 측은 당시 7개월 만에 급조된 탓에 하자투성이라고 설명한다. 국제적

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비엔날레의 '외출' 결정은 시설 신규 건립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한 '시위' 성격이 짙다.

공간적 공유만으로는 한계

그렇지만 잠시 이런 사정을 접어두면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의 협력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비엔날레는 현재 정부가 단행한 일몰제(2008년부터 진행한 7회 이상 국제행사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에 걸려 있는 터라 이로 인한 행사 축소 여파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가 국가 기관인 문화전당에서 열리면 정부 행사에 간접적으로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측도 관람객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미 문화전당에서 지난 비엔날레의 일부 전시를 개최하면서 양측은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문화전당 측에서도 비엔날레 관람객(2016년 기준 40만 명)을 흡수, 문화전당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내심을 감추지 않는다.

두 기관의 협력이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 좀 걸리는 대목이 없지는 않다. 광주문화 발전을 위한 '공리'(公利)가 생략된 '실리'(實利)적 접근이라는 혐의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양측의 곤궁한 이

해가 맞아떨어진 결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도. 정작 비엔날레가 문화전당에서, 문화전당이 비엔날레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엇을 보여 주겠다는 것인지, 어떤 콘텐츠를 마련하겠다는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에서는 비엔날레 행사 기간(60여 일)에 자신들이 보유한 공간을 빌려주고 무엇을 하겠다는 설명도 없다. 이는 '왜'라는 본질적인 고민과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결론이다. 아쉽게도 두 기관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흔적을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진정한 콜라보 고민해야

두 기관의 협력이 단지 '공간적 공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로 한계를 인정하는 반성적 사유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동안 비엔날레는 국제행사는 명성에도 미칠 영역이나 작품 속에서 신선함과 새로움을 보여 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 2014년 비엔날레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체제를 정비했지만, 관람객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안타깝게도 행사 성공을 위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외부의 평가는 회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나고 있다.

지난 2015년 개관해 걸음마 단계인 문화전당은 오히려 서서히 잊혀 가는 듯하

다. 전시·공연 프로그램에서 인지도와 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결정적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국내 외 인지도가 시설 규모를 따르지 못한다는 게 지역 문화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제법 흥미로운 전시를 열면서도 관람객들을 문화전당 문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늘 실패하고 있다.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자면, 문화전당에서의 비엔날레 개최는 두 기관이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지난 2014년 행사 주제를 '터전을 불태우라'로 정해 재기를 다졌던 비엔날레는 문화전당이라는 터전에서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행사 준비과정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비엔날레 재단의 바람대로 전시 공간을 새로 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다. 관성대로 전시를 치른다면 전당 개최 효과는 제로에 그칠 것이다.

문화전당은 문화콘텐츠 창작과 제작이라는 본령을 멋지게 구현해야 한다. 문화산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광주 브랜드' 공연이나 전시를 선보이는 것은 문화전당의 당위이고 문화전당 건립을 바랐던 시민들에게 응답하는 길이다. 비엔날레와 협력을 단초로 지역사회 문화예술·콘텐츠 기관과 협력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 결과로 '지역에 인쇄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두 기관이 상생 협력을 꽃피울 시간은 아직 많다.

은편칼럼

“한 놈만 패라”



이 병 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교수

오래전에 상영됐던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무대포' 역으로 나오는 유오성이 명대사를 남겼다. 바로 '한 놈만 패다'이다. 유오성은 한 명이 여러 명이랑 싸울 때 어떻게 하나냐는 질문에 '백 명이던 천 명이든 한 놈만 패다'고 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한 놈만 골라 집중으로 때면 나머지는 겁을 먹고 쉽게 달려들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한 놈만 패다'고 말한 유오성이 영화에서 단순 우직스럽게 그려지지만 이는 고도의 전략이다. 전략의 요체인 '선택과 집

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고 있고 쉽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이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감해야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지난달 열렸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특위 청문회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허탈해 했다. 증인들이 무더기 불참했을 뿐 아니라 청문회에 나온 증인을 하루 종일 뒤달렸음에도 결정적인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나마 막판에 위인을 얻었다면 바로 '한 놈만 패라'는 전략으로 '모르쇠' 전선을 격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이용주 의원은 유오성이 "나는 한 놈만 패다"고 한 것처럼,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는 질문만 반복해서 성과를 거뒀다. 같은 질문을 17번이나 집요하게 한 결과, 만만치 않은 조운선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 리스트가 존재한

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덕분에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명대사가 다시 한번 회자됐고 이용주 의원은 '버럭 요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 장면은 참로 회수까지 편집되어 유튜브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다.

"한 놈만 패라"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하다. 상대와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혼자서 건달 여러 명을 잡아놓고 기합을 주는 장면이 있다. 많은 수가 한 명에게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대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덤벼면 한 명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그 한 놈이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같은 심리전이 통하지 않으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청문회에서 이용주 의원은 처음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한다. 질문 도중에 조운선 장관이 흔들리는 김새를 눈치채고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버럭 소리까지 질러가며 기선을 제압했기에 블랙 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하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호통만 치는 국회의원이라고 호된 질타를 받았을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오랜 심문 경험이 있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한 놈만 패라"는 싸움의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쓰인 전략이다. 사업 부분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명성 효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장면을 접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생생한 사례로 오랫동안 인용될 것이지만 마냥 사이드 같은 느낌만 갖지 못하는 것은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남도음식 산업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이 답이다



박 진 석  
창업인센티브·경영학 박사

의대에 다니던 친구가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막상 응급실에 오보니 그동안 배운 이론만으로는 환자를 보니 너무 어렵다"고 토로한 적 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이론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현장 '경험'과 '숙련'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은 지식과 체험을 통해 실패를 줄여나가고 옳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다. '경험'과 '숙련'은 경영현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외식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을 할 때마다 매년 600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공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와 환경에 대한 고려와 선택과 집중이 뒤따른다. 결정의 순간마다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로 '오답'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실패보다 성공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이론을

통한 배경지식 위에 오랜 시간 축분한 현장경험과 숙련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광주는 기업과 산업체 등이 많지 않아 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는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많은 청년창업가를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경험과 숙련이라는 과정 없이 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경우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청년창업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서도 벗어난다. 대부분 청년창업가들은 좋은 제품·업종을 개발하고도 홍보와 인지도 부족으로 판로확보가 힘들고, 유통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행연속 없이 무작정 '살벌한 경영환경'에 진출해 90%가 실패하는 스티븐 고베를 마시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에서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청년CEO 창업몰'이라는 빌딩을 대도시 변화기에 마련했다. 경상북도가 건물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창업교육으로 실력을 갖춘 청년들이 이 건물에 들어가 제품판매 등 '실전경험'을 쌓는다. 순천시 역시 순천역 근처에 활용도가

낮은 농협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점포 22개와 공연공간을 마련했다. 지역청년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좋은 상권에 자리 잡아 '생애 첫 창업'을 시작,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쳐 마침내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또 AI센터 서울사무소는 'a도랑'을 운영, 대학생에게 한 달 동안 사육 식당을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음식조리 및 서비스를 제공해보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한다. 충분한 시간과 실천경험을 거쳐 창업을 찾아올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3만6000여 개 음식점이 창업에 나서지만, 그중 45%는 1년 내 폐업하고 연 1조2000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창업실패는 결국 사업자를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고, 민생경제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담과 사회문제도 이어진다. 더 이상 정부나 지자체가 창업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만 이 민생경제에 있어 본연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선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은 경상북도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요지에 청년창업빌딩을 마련하고,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절차, 전략, 경영, 기술지도, 법률상담 등을 통해 창업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창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말이다.

광주는 '맛'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러나 주변 외식업주들은 "음식문화가 발달한 광주지만 외식사업으로 전국에 이름을 떨치는 성공한 '브랜드'가 없다"며 안타까워한다. 청년들이 충분한 경험과 숙련과정을 거쳐 실패의 쓴맛을 보지 않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 선배 사업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면, '광주의 맛'으로 성공한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며, 결국 6차산업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연 매출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지역에 생산공장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늦게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공해까지 유발하면서 광주에 공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맛'의 고장 광주'만의 프랜차이즈를 키워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광주의 강점인 음식 문화를 개발하고 청년창업과 연계해 음식산업화를 선점해야 한다. 청년이 성공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생산하는 도시, 외식산업화 선도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社 說

탄핵 심판, 자연작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어제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또다시 불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까지만 해도 안 전 비서관이 현재의 증인 신문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벌써 세 번째 불출석이다. 결국 오전 재판은 서증 조사만 이뤄진 뒤 24분 만에 끝났다.

이날 오후 열린 증인 신문에서도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래재단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됐다. 예정된 증인 신문이 열리지 못한 만큼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오는 16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증인 가운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환 전 미래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 3명도 소제 불명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신문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증인 신문 공전으로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광주 전남 '4차산업혁명' 대비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래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치열한 선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서둘러 시초와 양천지구와 함께 4차산업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판교 창조경제벨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어서 미래 산업 분야마저 지방 소외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광주에는 '빛고를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을 계획 중인데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한전

현재가 엄격한 재판 진행으로 더 이상의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을 통해 박 대통령 측이 현재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현재가 이미 진행된 증인 신문을 비롯해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심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인 신문에 크게 애매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예정된 변론으로는 20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22일 안종범·최순실 씨 등이 남아 있다.

정권인 안팎에서 22일이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 신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새로운 쟁점을 내세우며 추가 변론과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소모적 논란이 불가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변론 일정을 정하고 탄핵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진행, 국정 공백의 최소화해 나서야 할 것이다.

의 빛가람 도시 이전과 에너지 신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돼 광주가 에너지산업 도약과 육성의 최적지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남도 역시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산업혁명을 앞두고 관련 실국에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구체적 사업과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 시도의 이러한 계획은 타 지자체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작정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더 낮은 자세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초한쟁패에서 유방과 항우의 승패는 어떤 면에서는 에마에서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주인이 강을 앞에 두고 생사의 기로에 서자 이들의 에마는 서로 다른 결정을 했다.

항우는 유방과의 해하전투에서 패해 오강(烏江)에 이르러 갔다. 결에는 에마 오추마가 있었다. 오추마는 검은 털과 흰 털이 섞인 말로, 용이 호수로 내려와 말로 변했다는 전설 속의 명마다. 운명이 다했다는 것을 직감한 항우는 '해하'를 울고 강으로 뛰어 들었다. "힘은 산을 뺄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마저 가지 않구나. 오추마마저 가지 않으니 난들 어찌리리." 항우는 오추마를 살려 뱃목에 태워 보냈으나 오추마는 주인을 따라 익사했다. 총직의 상징인 오추마가 해엄쳐 강을 건넜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삼국시대에 유비는 자신을 죽이려는 채모(유표의 처남)의 음모를 눈치채고 에마 적로를 타고 달아났지만 얼마가 지 못해 물살이 거센 단계(櫓濤)가 가로막았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적로의 갈기에 얼골

을 묻고 눈을 감는 것뿐이었다. 적로는 흥마라고 모두들 꺼릴 때 유비가 자신을 아껴 준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비의 채택에 적로는 죽을 힘을 다해 거센 물살을 가르고 강을 건너는 것으로 보답했다.

말의 수양 실력은 동물 중에서도 수준급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급류를 만났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생마사(牛生馬死)는 고사성어가 있다. 말은 소에 비해 해엄을 훨씬 잘 치지만 자

신의 실력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 가려다 결국 힘이 다해 익사하고 만다는 얘기다.

반면 소는 거센 물살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다 조금씩 물가로 다가가 목숨을 건진다.

싱글 풀퍼와 초보 풀퍼의 차이는 드라이버의 운용법에 있다. 드라이버는 거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초보는 거리 육심에 무조건 강하게 치다 OB를 내지만 싱글은 방향을 우선으로 찾는다. 친구가 보내 준 우생마사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렵고 힘들수록 호흡을 가다듬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우생마사(牛生馬死)**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기 회 관 리 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